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자리에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기 위해서 선법 도리를 가르쳐 드린 겁니다. 나의 진정한 참나는 무시하고 내 육신 본의로서 산다면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만 되겠습니까? 윤회에 끄달리고, 또 이렇게 나와야 하고, 또 짐승의 몸을 받을지 축생의 몸을 받을지, 사람의 몸을 받아서도 가난하고 못된 자식을 두거나 또 그만한, 차원이 낮은 부모를 만나거나 이래서 우리가 부딪치고, 그런 부딪침을 또 어떻게 당하렵니까? 다 몰락 놓으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끄달리는 사람도 역시 끄달리는 겁니다. 내 중심이 없다면, 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끄달리고 놓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끄달린다면 앞으로 자기는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느냐 이러겠죠.

줄창 말하듯이, 여러분이 기본 상식과 양심과 교양, 이런 것은 타고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등 동물로서의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부처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70% 80% 90%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해롭지 않게 한다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것도, '그것도 버려라, 저것도 버려라' 한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예배 올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가나 부처님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를 올리고 또 배를 합니다. 자기 하나하나 움죽거림에 의해서 항상 자기 내공에서 하고,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항상 예배 올리는 것이요, 항상 탑돌이를 하는 것이요, 항상 향을 피우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마음으로만 하지 어째서 갖다가 올려야만 하느냐.

그럼 여러분, 마음으로만 먹지 밥을 왜 먹습니까? 아, 마음으로만 먹지 왜 밥을 먹어요? 마음으로만 먹어도 배부르다면 그냥 마음으로만 잡숴요. 그리고 벌이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죠. 어디까지나 부처님 법을 아시는 분이라면 밥을 먹되 내가 한 그릇을 갖다 놓고 위로 예를 올리고 자기 한마음이…. 한마음 도리란 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대의 삼세의 부처님들이 다, 유생 무생의 어떠한 생명도 빠짐없이 한데 합쳐서 내 내공에 있으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밥 한 그릇을 먹는다면 삼천대천세계에 그 공양을 다 올리고도 남음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하되 사원에 오면, 법당에 올라가면 공양 한 그릇 올리는 것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안팎이 없이 그렇게 겸손하고 알뜰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법당에 와서 아무렇게나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생각한 것만치 아무렇게나 될 것입니다.

향도 내 마음의 향입니다. 여러분이 향 한 개비를 꽂을 때 그 방 안에 그윽하게 향냄새가 나듯이 내 마음의 향기는 우주를 싸고돌 수 있는 향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가 그 모든 유생 무생과 부처님들을 다 모시고 있는 이 내공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처님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 그 향기가 이 우주 법계를 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있고, 이 공기라는 말을 낸 것도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기를 하루 얼마씩 사서 사신다면 아마도 바가질 들고 그냥 무척 애를 쓰고 돌아다닐 겁니다. 또 물을 사서 산다면, 지금도 팔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을 제가 끔들 다 사서 살아라 한다면 불, 물, 공기 이런 것 다, 흙 이런 거 사러 다니느라고 볼일 못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고마운 줄을 알아라 이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부처님의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 같이 한데 합쳐서, 공해서 그 많은 마음들이 한데 합쳤기 때문에 태양도 형성시켰고, 바로 우리들 몸을 형성시키기 이전에 벌써 이 지구 덩어리를 만든 겁니다. 지구 덩어리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 마음들이, 한데 합친 마음이 바로 정원을 꾸민 겁니다. 그 한데 합친 마음이 그렇게 해 놓곤 자기네들이 태로 나고 알로 나고 질척질척한 데서 나고 화해서 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향 한 개비를 꽂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으로다가 그 모두를 한데 합친 그 예를 올리는 배(拜)를 내가 한다면, 그 향 한 개비를 꽂는데 이와 더불어 같이 꽂는 게 되는 것입니다. 몸뚱이는 배를 하고 이 마음이 한데 합쳐진 한마음은 예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나침반이 되고 운전수가 돼서 그렇게 중계 역할을 잘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육신과 더불어, 내 지금 마음과 더불어 이 내공에 바로 그 포괄된 부처님의 마음과 응시가 됩니다. 응시가 돼서 서로 상응하면서 해 나가는데 안팎이 없이, 지장 없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됐을 때 비로소 자유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 한 개비 불 하나를 꽂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불의 심지가 바로 댁의 마음인 줄 알아야 하고, 불의 심지가 마음이면 그 마음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인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몸뚱이가 불을 켜지 않으면 어떻게 따뜻한 기운이 나오며 어떻게 빛이 비칠 것입니까? "여러분 몸뚱이가 켜지 않고 마음으로만 켜세요." 그러면 잘 켜질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팎이 없이 켜라 이 소립니다, 안팎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항상 자기가 배를 하고 예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 자기 자성불에, 포괄된 자성불에게, 우주를 덮고 있는 자성불에게 예를 하고 배는 자기 몸뚱이 육신이, 사량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평상시에 우리가 밥을 수저로 떠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그 점도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똑같습니다. 무의 법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유의 법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중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그 뜻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남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생각을 내면 그대로 그냥 여하게 법이 되고 빛이 나고 향기가 풍기고 이렇게 되고, 한생각을 내지 않으면 그대로 감춰지고, 그대로 움죽거리면 그대로 화신으로서 무에나 유에나 다 움죽거리게 되고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그렇게 여여한 부처님의 편안한 그 법을, 편안하다 편안치 않다 할 것도 없지만 그러한 편리한 법을 우리가 잘 선택하려면 안팎이 없이 어디 하나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예배를 올리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내 한 마음이요, 부처님의 몸이 내 한 몸이니 어찌 내가 예배를 올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해서 그렇게 예배를 올린다면 그게 다 한마음 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하루 보름이 돼도 '이거 뭐, 내가 내 마음 찾으면 된다는데.' 이러고선 그냥 불뚝불뚝하는 그런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라면 자기 부처한테도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그거는. 항상 자기 자만심이 즉 자기 그 주인공의, 그 부처님의 마음 자체 위에 서서 항상 잘났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인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바란스가 맞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할 수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량이 나오더라도 내 주인공 그 자체, 그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은 나 하나의 마음밖에 없는 게 아니라 수만 마음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밥 한 그릇을 놓고 참 고맙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십니까? 그 농사꾼들, 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전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같이 하고 먹는 건 따로 이렇게 끓여 먹는 거 아닙니까. 끓여 먹는 것만 자기가 따로 끓여 먹는 거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움죽거리고 같이 말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 어째 한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 그릇을 놓고 먹을 때 내가 예를 올리면 전체가 다 감사함을 받는다 이 소립니다. 자기 부모까지도. 그런데 예를 안 올려요? 그래 부처님 도량에 왔으면 부처님 사시마지 때 한 그릇 올리는 거라도 지극정성으로, 내 마음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당에 안 올라가도 돼.' 그러는데 흥, 좋아하십니다, 모두. 참 좋아하십니다. 공덕과 복과 뜻과, 이것이 모두 포함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공덕도 쌓지 않고 나만 나라고 한다면, 마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어서 급할 때에 남한테 공덕을 베풀어 줄 수도 없거니와 그 밝음을 비춰 줄 수도 없습니다. 왜? 지혜가 그렇게 없으니 허공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겠습니까, 어디? 그러니 깨달음도 여러 가지가집니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지혜가 풍부치 못하다면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요.

당장 밥을 굶어서 부황이 나서 죽게 됐을 때, 그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방 가서 먹여 줘야, 미음 물이라도 흘려 넣어 줘야 그 사람들이 살 텐데, 그러면 마음공부 한 사람들은 '아이, 마음공부 했는데 뭐, 마음으로 그냥 살려 주지.' 이러고 말 겁니까? 마음으로 살려 주기도 하면서 에너지도 넣어 줘 가면서, 쌀을 끓여서 미음도 넣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양 개체가 딱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사람은 굶겨 놓고 마음으로만 에너지를 넣어 준다고 해서 살겠습니까?

(중략)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믿음에 대해서도, 모든 이 행에 대해서도, 생활에 대해서도 "몰락 모든 것을 놔 버려라." 하는 거는 내 내공이 한데 한마음이요, 한뜻이요, 한 움죽거림이니까 그것을 바로 너만 가진 것도 아니고, 나만 가진 것도 아니고 각각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여하게 그대로니 부처님의 뜻을, 심오한 뜻을 알고서 그대로 행해라 이겁니다. 이리로 치우치고 저리로 치우치지 말라 하는 뜻에서 이것을 "몰락 놔 버려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닭이 말입니다, 병아리를 깔 때 품지 않고 병아리 까는 거 보셨습니까? 요샌 기계 병아리도 많습디다마는, 기계 병아리도 그래요. 그거는 씨가 없어. 기계로 까는 건 씨가 없어. 병아릴 까지 못한단 얘깁니다, 먹기만 하지. 그러니 병아릴 까려 해도 참 따뜻하게, 온화하게 해서 굴림으로써 병아리가 나오는데, 다 해 놓으면 나중에는 비켜나도 제 가끔들 까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내 내공 이 자체를 항상 이렇게 생활하면서 굴리면서, 그 내공이 모든 걸 하는 것이니까, 그 내공 주인공이 모든 것을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는 것이니까, 내가 고정되게 고집하고 관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지 마세요. 내 육신도 다 여기의 종밖에 될 수 없다. 이 종이라는 이름조차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속에서 바로 이 내공에 항상 예를 하고, 배는 내 육신의 사량, 이런 것이 예배를 통해서 같이하는 그런 그 굴림이니, 그 굴림을 우리가 가부좌만 틀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앉으나 서나 다니나 나가나 들어가나 항상 참선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굴리는 법이 되고, 그럼으로써 저절로 병아리는 까지게 돼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다 이 소립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서 내가 내 본위로서 말씀을 해 드린다면 '저거 미쳤군. 저거 미쳤어.' 이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위로서 내가 얘길 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병아릴 깔 수 있게끔 따뜻하게 그 굴림을 다 굴렸는가. 그 알을 다 굴렸는가. 그래서 알이 차도 안 되고 온도가 높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온도가 맞도록 항상 요게…. 그러니까 아무 데도 치우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스스로서 바로 껍데기를 까실 것입니다. 그리고 걸음을 걷게 되고, 그때는 항상 우리가 자유스럽게 아마 그 뜻을,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여러분이 향 한 개비를 꽂을 때
> 그 방 안에 그윽하게 향내가 나듯이
> 내 마음의 향기는
> 우주를 싸고 돌 수 있는 향기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4년 4월 22일 일반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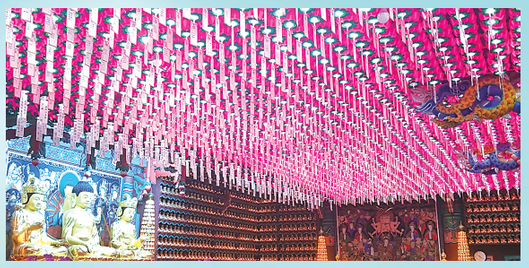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